

# 장성군, 규제 개선 공모 통해 불합리한 규제 손본다

## 창업·인허가 절차 등 6월 14일까지 누구나

장성군이 복지, 취업, 창업, 인허가 절차 등 불합리한 규제를 손본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일상생활, 기업 경영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2024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기존

의 공무원 대상 규제발굴 활동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모 내용은 △노인·장애인·저소득 주민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 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규제 개선(농지, 산지 이용 확대) △기업 투자 저해 규제 등이다.

수수료나 과태료 부과, 보조금 관련 등 비규제 항목과 단순 진정·민원은 공모에서 제외된다.

장성군민은 물론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 누리집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획실에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장성군은 제안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중점 심사해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수상자를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장성군 누리집 게시와 함께 개별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제안에 대해 부서 검토,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며 "중양법령의 경우,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유봉현 기자

##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학습자 담양군, 14일까지 추가 모집

담양군이 함께 평생교육을 이끌어갈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학습자를 추가 모집한다.

7일 담양군에 따르면 문해교육사란 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부터 사회 생활에 요구되는 기초 생활 능력(디지털 문해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추가모집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고졸학력자 이상의 담양군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제출한 선행조사지 평가를 통해 최종 학습자를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누리집 공지사항과 담양군 평생학습정보망(www.damyang.go.kr/edu)을 확인하면 되며, 문의 사항은 담양군청 행정과(061-380-3188)로 하면 된다. 담양=신재현 기자

##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자 모집 곡성군, 19~64세 청·중장년 대상

곡성군은 지난 2일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과 가사를 지원하는 재가 돌봄·가사서비스와 병원동행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세~64세 청·중년,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13~39세)이다.

신청을 원하는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는 신분증과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맞춤형복지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곡성=김대영 기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화순군, 하반기 231명 모집

화순군은 지난 3일 '2024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취업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 및 사회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추진·공공서비스 지원·환경정화 등 70개 세부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관광자원 활용·다문화가정 지원·마을가꾸기 등 4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임금은 시급 9860원 기준으로 지급되며 4대 보험·유급휴일 등을 적용한다. 근무 시간은 주20~40시간이며 주 40시간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만 18세~34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모집인원은 공공근로사업 199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2명, 총 231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준비 13일부터 2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 담양군, 지역사회 건강조사 성인 900여명 건강실태 파악

담양군은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담양군의 건강통계산출을 위한 지역사회건강 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따라 담양군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질병관리청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표본 가구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표본 가구에 직접 방문해 태블릿PC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등)와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등 총 17개 영역 172개 문항을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추후 지역별 대책 수립, 건강 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주민통계가 산출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므로 표본 가구로 선정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 화순군, 복지센터 등 6개소서

화순군은 7일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 시설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기간은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1시~3시까지이다. 이번 출장 검사는 △27일 화순고인돌전통시장 공연장 △28일 도곡면행정복지센터 △29일 청풍면행정복지센터(오전), 춘양면행정복지센터(오후) △30일 동면행정복지센터(오전), 동북면행정복지센터(오후)에서 진행되며 △31일은 추가 검사필요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출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하여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 소요 시간은 한 대당 10~15분 정도이며 배출가스와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화순=김선중 기자



'나비 찾아 떠나는 함평여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함평 나비축제에 18만5500명의 입장객이 다녀갔다.

함평군 제공

## 함평나비축제 18만여명 방문... 내일부터 정상 운영

지난달 26일 개막한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가 지난 6일 폐막했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함평나비대축제가 관람객들의 호평 속 6일 폐막식을 끝으로 11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나비 찾아 떠나는 함평여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나비대축제는 전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 지역축제로 18만 5500여 명의 입장객이 다녀갔다.

입장료 수입은 7억2900여만원을 기록했다.

군민이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은 1

억 69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각종 판매장 매출과 부스 임대료 수입 등을 합하면 7억6200여 만원에 달한다.

이번 제26회 나비축제는 대표 나비인 산호랑나비를 비롯해 25여만 마리의 나비와 다양한 초화류가 축제장을 장식했다.

이 밖에도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 엄마 까투리 공연, 바나나 따기 체험, 도심 속 목장나들이체험, EDM파티 등 40여 종에 이르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유채꽃, 안개꽃, 꽃양귀비 등 봄꽃의

향연을 이룬 함평천 수변길과 엑스포공원 일대에서는 파스한 봄날의 속삭임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었다.

올해 새로 개장한 함평추억공작소는 70~80년대 함평의 실제 생활상을 축소·재현하여 시대의 역사와 향수를 느낄 수 있었고, 황금박쥐 조형물을 전시해 놓은 황금박쥐전시관도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함평군은 나비축제의 봄 내음이 남아있는 함평엑스포공원을 9일부터 일 반에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 장성군, '안평쌀' 전남 최초 미국 수출

### 텍사스주에 4kg 300포

장성군은 7일 안평쌀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벼 '안평'은 일반적인 쌀보다 맛이 달고 찰기가 돌아 선호도가 높다. 2020년 최고품질 쌀로 선정됐을 정도로 밥맛이 보장된 품종이다.

장성군은 전남 최초로 재배 시범사업에 뛰어들어 18.5ha 규모 단지를 조성했다. 글로벌장성영농조합법인이 재배를 맡았으며, 장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농가 재배기술 교육,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했다.

이날 군은 미국 텍사스주에 4kg 들이 300포 분량을 시범 수출했다.

토양 검정, 엽색도 측정, 단백질 검사



7일 장성군이 안평쌀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장성군 제공

등 엄격한 과학적 관리를 통해 재배된 특등급 안평쌀을 미국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시식회와 소비자 반응을 통해 맛이 검증된 안평쌀이 미국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품질 쌀 판매시장에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국내외 판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